

순창군, '문화가 숨쉬는 순창' 만들기 박차

위라벨 문화 확산에 직장인 취미·문화활동 수요 급증 군, 민간 유희시설 지원 등 문화공간 조성 확대 계획

순창군이 '문화가 숨쉬는 순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99㎡ 이상의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 민간시설 운영자를 모집하는 등 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문화 수요를 단순히 공공시설만으로는 해소하는 데 한

계가 있음에 따라 민간 유희시설을 지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접수는 26일까지이다. 접수된 시설은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7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시설 보수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경영활동에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 확산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군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던 시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를 꾀함에 따라 접근성과 함께 친숙함으로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직장 내 위라벨 문화 확산으로 일과가 끝난 직장인들이 취미생활과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

했다. 군은 문화가 함께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눈이 높아진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으로 귀촌하는 예술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활용해 관내 문화예술 분야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 군민들이 도시 못지 않게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군산 신시도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난다

주거경관 개선 공모사업 선정 군산 신시도가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시가 제안한 신시도 마을(사진)의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기존 들을 벗어나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신시도는 총 12억원(도비 6억, 시비 6억)이 투입돼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게 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 마을인 신시도 마을을 경관·주거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사항으로 신시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전설이 담긴 테마 옹벽 조성, 낮고 오래된 지붕 및 담장에 통일된 채색으로 시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재향정읍시경우회 안보견학 재향정읍시경우회(회장박금용)는 최근 강광 고문 등 임원진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에 있는 천안함기념관을 찾았다. 이들은 또 유관순 열사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며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강화를 다짐했다. <재향정읍시경우회 제공>

남원시, 민원 상담 '시민사랑방' 운영

남원시가 주요 기관들과 함께 시민 민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방은 남원시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건강 관리, 생활민원, 복지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자리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 다양한 민원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소도 전

통시장이인 공설시장으로 잡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한 정책 대화도 이뤄진다. 지난 19일 진행된 시민사랑방에는 200여명이 몰릴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고충을 처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도 나누는 자리"라며 "더욱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상반기 재정집행 행정력 집중

일자리·SOC 주력...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5984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일부를 상반기 중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SOC 분야의 집행에 주력하고 매출 집행되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일괄, 선금급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행정안 전부의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강화

'납세자관리현장' 제정 본격 운영...민원상담 보호관도 배치

정읍시가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관리현장'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관리현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관리현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읍시 세무공무원들은 법적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관리현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봄축제 기간 음식점체 위생점검

고창군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음식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정보리축제 등 봄 축제와 연계해 식중독 예방과 친절서비스 강화, 식품·공공위생업소의 청결도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 축제장의 음식점을 방문해 식재료 취급, 조리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을 통해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계도를 병행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의 객실 위생관리 상태와 가격표 게시 여부도 점검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정보리발 축제 기간 '손씻기 위생교육' 부스를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구 덕남동 임야, 추천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